

Autumn 2014 Vol.68 www.plankorea.or.kr



또 하나의 나, 우리



CONTENTS

- 04 지구촌을 간다 1
The힘들지만 The즐거운여행, The좋은여행
- 06 우리는 플랜가족
6회 The좋은여행 방문팀 박기영, 고재완, 장정열, 심현미 후원자
- 08 Plan Report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세이프 스쿨(Safe School)
- 10 지구촌을 간다 2
폭풍우에도 꼬딱없는 여기는 세이프 스쿨입니다.
- 12 아주 특별한 만남 1
이운재 흥보대사, 출발 드림팀과 함께하는 희망의 승부차기
- 14 플랜 긴급구호
에볼라 바이러스
- 16 지구촌을 간다 3
걸스데이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생일파티
- 18 나눔의 행복
삼성디스플레이
- 20 플랜활동기
인연이 달아야 갈 수 있는 곳, “밍글라바, 미안마입니다”
- 22 지구촌을 간다 4
당신 안의 신에게 절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을 경배합니다. 나마스떼!
- 24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스리랑카
- 25 Enjoy Plan
- 26 플랜 소식

작은 실천, 큰 사랑

실천 하나.

후원금은 자동이체 혹은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기!!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셨다면, 결제정보 수정하기!!

▶ 변경방법 *전화 02-790-5436 *이메일 kno@plankorea.or.kr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

실천 둘.

도로명 주소 및 변경된 연락처 등록하기!!

▶ 변경방법 *전화 02-790-5436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

www.plankorea.or.kr

 facebook.com/plan.kr  twitter.com/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후원문의 02.790.5436 | 이메일 kno@plankorea.or.kr

통 권 제 68호 | 발행일 2014.9.16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기구로서
7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아동후원단체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7천 4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지구촌을 간다 1

The 힘들지만 The 즐거운 여행

The 좋은 여행

글_이도경 후원자 / 사진_The 좋은 여행 방문팀

**후원자 스토리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도경 후원자님이 The 좋은 여행에 함께했다.**

**이번 The 좋은 여행은 베트남 광응아이 지역을 방문해
플랜의 활동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였으며, 방문 지역에
필요한 식수대를 선물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후원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써서 후원자 스토리 공모전에 보내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벤트 당첨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 아이의 아빠가 여름 휴가를 혼자 해외에서 보내고 온다는 것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연락을 받은 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계속 고민했다. '그냥 못 갈 것 같으니, 에버랜드 자유 이용권이나, 아님 다른 상품으로 바꿔 달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다 포기?', '눈 딱 감고 가볼까?'

퇴근 후 집에 도착하고 아내의 첫 마디 말은 "왜 가고 싶은데?"였고 난 "그냥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도 재미있나 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럼 다녀와"라고 말해 주었고 그렇게 여행은 시작되었다.

첫째 날, 아침부터 느껴지는 더위와 함께 베트남에 도착한 것을 실감하다.

새벽, 작은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광응아이. 사무소장님의 베트남 지역 활동 이야기와 앞으로의 일정 및 방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손탁/하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모두는 더위에 지쳐갔다. (나중에 알았지만, 좁고 험한 길 때문에 작은 버스를 탈 수 밖에 없었고, 그 작은 버스는 에어컨이 잘 기동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착한 마을 초등학교에서 우리를 반기는 아이들을 보자 그에너지를 받아서인지 자질 줄 모르고 풍선을 한 100개쯤 불고, 뛰고, 환호성을 지르며 놀았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뛰어 놀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둘째 날, 길은 더 힘들었고

마음은 더욱 즐거웠던 손기 지역으로 이동

아침 일찍 어제의 버스보다 에어컨 상태가 조금은 좋은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손기 지역 운영위원회와 마을 보건소, 플랜코리아와 함께 롯데에서 설립을 지원했다는 롯데스쿨로 이동했다.

어제보다 더 산 속 지역이라는 말에 예상은 했었지만, 울퉁불퉁 길 때문에 울렁대는 버스와 더불어 내 속도 울렁거리기를 약 3시간. 드디어 운영위원회와 보건소에 도착했고, 플랜베트남 직원에게 현지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부와 플랜의 협력 아래 한

가정씩 방문해서 교육과 보건에 대한 설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고, 플랜의 지원으로 인해 지역의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과거 중국에서 봉사하던 친구들이 지방 지역으로 가서 학생 부모님들을 설득하던 생각이 났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신 점심을 속이 좋지 않아 거의 먹지 못하고 먼저 밖으로 나와 동네를 둘러 보는데 형제로 보이는 세 명의 아이들이 나를 바라본다. 아무 생각 없이 사탕 세 개를 주면서 하이파이브를 청했다. 역시나 곧바로 반응해 준다. 식사 후 롯데스쿨로 가기 위해 출발하는데 창문 너머로 그 녀석들이 손을 흔들어 준다. 빈 속에도 기운이 난다.

약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롯데스쿨에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고, 준비해간 선물을 나누어 주는 시간에 한국에서 아내가 접어준 종이접기 한복을 아이들 부채에 붙여주었다. (새삼 여행을 이해해 주고 손재주 없는 나를 대신해서 가는 날 저녁에 종이접기까지 해 준 아내에게 고맙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사탕을 나눠 주는데 이런 모자란다... 아직 못 받은 아이들이 아쉬운 눈으로 나를 쳐다 보는데 더 가져오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아이들에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고 풍선도 불고 뛰어 놀고, 학생 중 대장으로 보이는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고 나니 어느덧 되돌아갈 시간이다. 아이들과의 일정이 끝났다는 생각에 버스 안에서 내내 아쉬웠다.

이후에도 여러 장소로 이동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으며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담장 너머에서 보고 있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고는 웃어주던 두 아이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의 하이파이브에 호응해 주고 웃어주며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어준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이다.



아이들은 정직하다. 감정을 숨길 줄도 모르고 마음을 여는 것에 인색하지도 않다. 우리가 조금만 동기를 만들어 주면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소장님과 여러 관계자 분들이 식수대와 학용품 등의 지원과 베트남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고맙다고 연신 이야기 하셨지만, 그 정도의 것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험과 즐거움 그리고 추억을 받았다면 수지 맞은 것은 나라고 생각한다.

12년 전 아직 세상을 모르던 시절에 떠났던 해외 봉사에서 얻은 너무 많은 추억과 즐거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 여행을 떠나기 전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내가 아직도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아내가 묻는다. "재밌었어? 좋았어?" 난 자신있게 대답했다.

"응. 아직도 재미있고 즐겁더라."





우리는 플랜 가족

Plan Family Interview

6회 The 좋은 여행 방문팀

박기영, 고재완, 장정열, 심현미 후원자



고재완 후원자

Q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떻게 The 좋은 여행에 참가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편한 여행도 아니고, 시기를 맞추기도 쉽지 않고, The 좋은 여행 참가를 결심하는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A 박기영 후원자(이하 박):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박기영입니다. 저는 3회 The 좋은 여행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옥이(아이)가 좀더 큰 후에 다시 한번 The 좋은 여행에 참가해서 후원지역도 둘러보고, The 좋은 여행의 변화도 느껴보자 남편, 아이와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고재완 후원자(이하 고): 안녕하세요, 고재완입니다. 서울 살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로부터 The 좋은 여행에 대해 소개하는 메일을 받고 나서, '좋은' 여행이라는 문구를 보고 '어떻게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아동이 살고 있는 곳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후원을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무언가 느끼고 싶은 마음에 신청했습니다.

장정열 후원자(이하 장): 장정열입니다. 부산에 살고, 두 자녀의 아빠이고, 현재 진해에서 조선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회 캄보디아 때 후원 아동을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에 The 좋은 여행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4, 5, 6회까지 쭉 동참하게 되었네요. 현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The 좋은 여행에서 후원자님들과 며칠 활동하다 보면 가족 같아져요. The 좋은 여행에 은근히 중독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심현미 후원자(이하 심): 예비후원자 심현미입니다. 함께 온 아이들 이모가 플랜의 후원자예요. 아동 결연을 맺고 싶어 이곳 저곳 알아보다가 언니를 통해서 플랜코리아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여행에도 참가하게 되었어요.

A 박 저희 가족은 식구가 각자 한 명씩 아동을 후원하고 있어요. 저는 시에라리온의 여자아이를, 남편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 사는 아이를,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필리핀에 사는 아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결연을 위한 단체로 플랜을 선택한 것은 '비종교'라는 점 때문이에요. 플랜의 슬로건과 활동방향이, 종교적 이유들로 인해 활동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장애물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랜을 통해 아동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고 아동후원은 2010년 하반기에 시작했고, 아프리카 대륙 서부의 베냉이라는 나라에 사는 13세 여자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아동의 사진과 더불어 카드, 편지를 한두 번 주고 받은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여자아이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하는 플랜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플랜코리아를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플랜이 비종교 단체라는 점에서였어요. 앞으로도 플랜만의 이러한 방향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베트남 북부와 캄보디아, 라오스에 사는 세 명의 아이와 인연을 맺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난 아

Pla

이는 베트남 아이인데, 딸이 베트남어를 전공하면서 베트남 아이를 후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알아보다가 플랜을 통해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행을 하던 중 캄보디아에 오지가 많다는 걸 느끼고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라오스 아동은 4회 The 좋은 여행 참가 직후에 문득 라오스의 어린이를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심 애초에 The 좋은 여행에 참가 신청을 하면서 예비후원자로서 후원의 '개념'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했어요. 이번 여행에 스스로 부여한 의미가 있다면, 후원이 수혜 아동들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만 아니라 후원을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후원을 받는 아동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들었고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인 후원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후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후원에 대해 깊이 고려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A **박** 저는 주로 보건 쪽에 관심이 많아요. The 좋은 여행 기간동안 돌아본 의료 시설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플랜의 도움 덕에 보건소와 같은 전문 시설들이 지어졌지만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의약품이나 주사의 보관 온도와 방법, 의료용 도구의 소독 등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고 후원을 받는 아이들이 사는 실제환경이 극도로 나쁘고 낙후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기본적인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뛰어 노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매우 작아서 소규모 놀이 밖에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장 매번 The 좋은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끼지만, 플랜의 후원과 활동 모습은 어느 단체보다도 투명하고 잘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방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준비한 풍선 개수가 모자라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거예요.

심 플랜에 몸담고 일하는 분들, 플랜코리아 직원부터 지역 매니저까지, 그 분들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플랜의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첫날에는 일정도 힘들고 적응을 하느라 다들 지쳐있었는데 둘째날은 후원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던 것 같아요. 현지 어린이들의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후원자들과 현지 아동들이 서로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 **박** 캄보디아 The 좋은 여행 때는 제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그저 무안하게 서서 시설과 아동들을 둘러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트남에서는 이 지역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도 스스로 알아서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려고 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The 좋은 여행의 일정표를 많이 살펴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깊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장 각 나라마다 지니는 특성이 있기에, 굳이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문화적 차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현지에 있는 아이들의 행동과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A **박** 제가 이 지역의 모든 원조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보고나니 마치 제 도움으로 이 지역이 발전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부자기 된 느낌이었어요. 특히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들이 일상탕 하나와 과자 한 조각씩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작은 것으로도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같은 표현만으로도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 좋은 분들을 만나 이 자리까지 같이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모두 좋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잘 왔고, 앞으로 열릴 7회 The 좋은 여행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후원을 더 추천해서 다음 여행에는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심 The 좋은 여행이 여행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형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정열 후원자

Q 플랜이 활동하는 지역을 직접 둘러보신 느낌이 궁금해요.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



심현미 후원자

Q 박기영 후원자님이나 장정열 후원자는 이번 방문이 처음이 아니신데, 이전 The 좋은 여행과 이번 베트남 여행에서 느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Q 마지막으로 덧붙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Q The 좋은 여행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후원에 대한 생각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후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플랜을 선택하신 이유라든지… 후원아동 소개도 좋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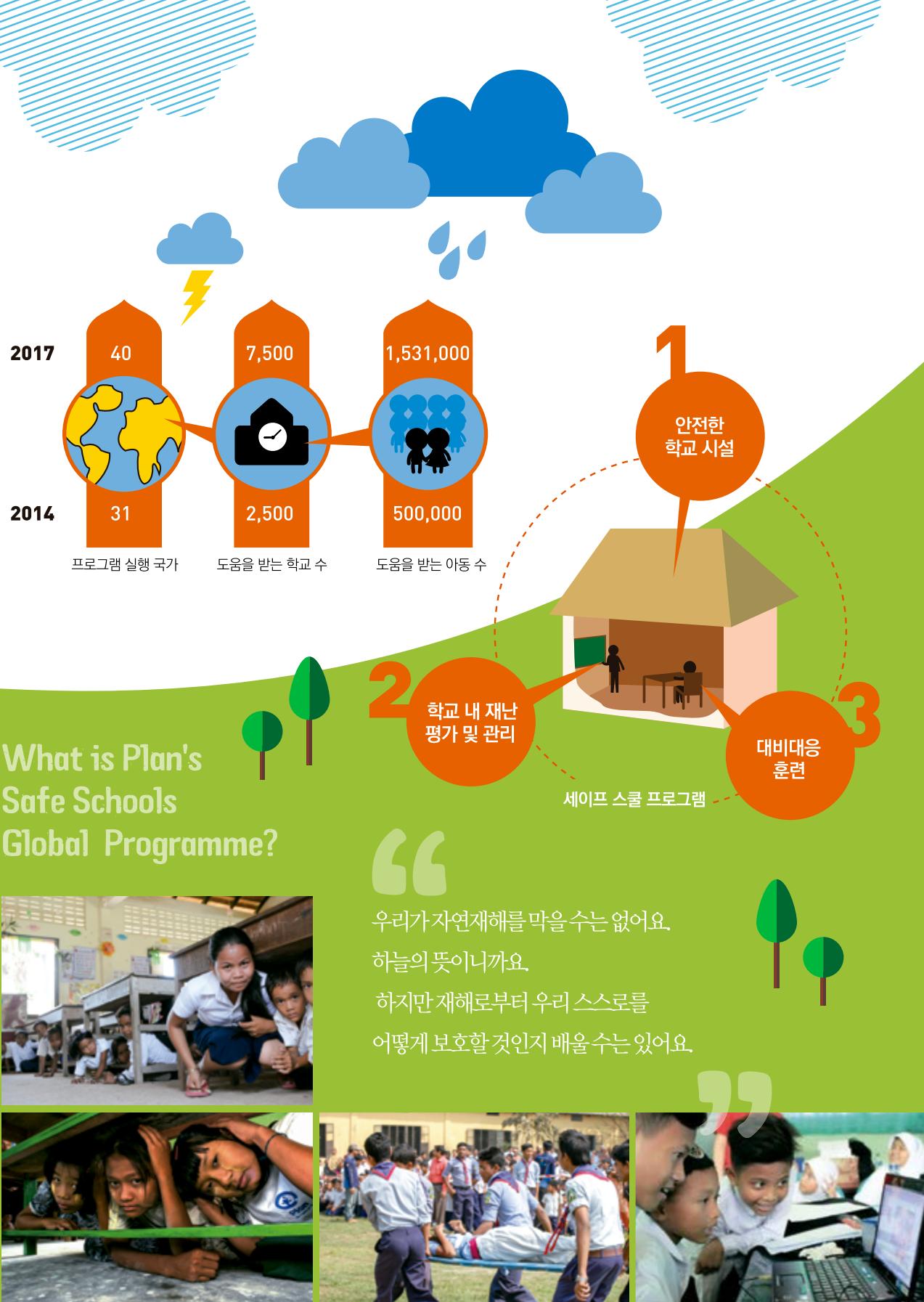
장 베트남 북부와 캄보디아, 라오스에 사는 세 명의 아이와 인연을 맺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난 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세이프 스쿨(Safe School)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재난 위험 지역에 살고 있다. 8억 7천 5백만 명의 아이들이 지진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살고 있고, 수억 명의 아이들이 홍수, 산사태, 강풍, 화재 등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아이들은 하루의 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재난 상황 시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훈련이 필요하다. 학교가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면 아이들, 가족, 지역사회에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플랜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재난대비 교육을 통해 긴급상황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폭풍우에도 고떡없는, 여기는 세이프 스쿨입니다.

글_플랜코리아 홍보기획팀 김혜현 / 사진_포토그래퍼 원상희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서남아시아를 휩쓸었던 쓰나미가 일어난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세계 각지에서 여려 차례 자연재해가 일어나 세계인들의 기슴을 아프게 했다. 기후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이 자연재해의 횟수와 성향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인 탤런트 백진희의 이번 자카르타 방문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재난대비에 대한 내용으로 비교적 자연재해가 드문 곳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다가왔다. 화려한 자카르타의 빌딩 숲 사이에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가난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아이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생소할 뿐이었다.

화려하게 펼쳐진 자카르타의 빌딩 숲 반대편, 거대한 쓰레기 마을을 찾았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풍겨오는 악취를 간신히 참고 있자니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염소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마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이곳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 그리고 이곳이 놀이터인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가 만난 여섯살 쎄시아도 그랬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쎄시아는 땅볕 아래 쓰레기를 주우러 간다. 하루종일 쓰레기 한 포대를 모아 간신히 200원을 번다고 했다. 언제든 쓰레기를 주우러 갈 수 있도록 쎄시아의 집은 쓰레기장 안에 있다. 쓰레기가 만든 거대한 산을 맨발로 거침없이 오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이곳은 집이자 일터 그리고 놀이터인 셈이다. 쎄시아의 일을 돋기 위해 우리도 포대를 집어 들었다. 어설픈 우리 모습이 우스워 보였는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아이들이 우리 포대를 함께 채워주기 시작했다. 반대편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더 넓고 깨끗한 세상과 만날 수 있는데, 쓰레기 더미를 놀이터 삼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 아이들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비라도 와서 마을이 침수되면 이곳은 어떻게 될지는, 애꿎은 하늘만 자꾸 바라보게 됐다.

상습침수 구역이라는 또 다른 마을을 찾았다.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하기도 힘든 좁디좁은 통로 양 옆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옆으로 바로 보이는 강은 언제든 범람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려가는 쓰레기 더미 옆에서 빨래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그 옆에 공동 화장실. 철저히 분리되어 보여야 할 장면이 한눈에 들어왔다. 열악한 위생상태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강에 거침없이 다이빙을 하며 우리를 환영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조금만 비가 내리면 바로 물이 불어나 마을을 덮칠 것 같은 강마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자 일상이 되어버린 모양이었다.

구조가 매우 특이했던 이 마을에는 빨래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굽어 보이는 긴 줄들이 집집마다 앞에 걸려있었다. 놀랍게도 이 줄은 빨래줄이 아니라 강이 범람하면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잡는 가이드 줄이라고 했다. 그저 그 줄에 매달려 2층으로 올라가 물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물이 빠지면 스스로 영망이 된 집을 복구하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라고 했다. 우리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일상을 선물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주고, 페이스페인팅과 이미용봉사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했다. 소문을 듣고 옆 마을에서 달려온 아이들까지, 오늘만큼은 즐거운 하루가 되었길 바래본다.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가 잦은 탓에 플랜은 세이프 스쿨(Safe School)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법을 교육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과 시기를 불문하고 갑작스레 닥쳐오는 다양한 자연재해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노래와 율동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즐겁고 유쾌한 노래에 맞춰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고, 뻐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면 자연재해는 두렵지 않은 존재임을 배우고 있었다. 처음 배우는 율동이었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해 간단한 게임형식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재난 대처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리 준비해간 티셔츠에 아이들의 꿈과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꿈을 쓰고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재해로 무너진 집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재해를 일상으로 겪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지구촌의 재해에 무관심했던 내 모습이 참 부끄러웠다. 한참을 그리고 나니 아이들의 웃음과 꿈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 이곳이 진정한 세이프 스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특별한 만남

이운재 홍보대사, 출발 드림팀과 함께하는 희망의 승부차기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던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 플랜코리아가 KBS 주말 프로그램인 '출발 드림팀'과 함께 축구 꿈나무를 지원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 '희망의 승부차기'를 진행했다.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했던 그 기적이 축구 꿈나무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된, 그 뜨거웠던 현장을 지금부터 만나보자.

사진_포토그래퍼 김상준



월드컵 기적, 희망의 승부차기를 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이운재 선수가 다시 한 번 몸을 날렸다. 플랜코리아와 출발 드림팀이 함께하는 희망의 승부차기에 플랜코리아 홍보대사로서 축구 꿈나무 지원을 위해 나선 것이다.

에버랜드 장미원에서 진행된 이 특별한 경기에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거미손 이운재 선수 외에도 만능 엔터테이너로 주목 받고 있는 가수 손진영, 조향리 아나운서 그리고 아이돌 스타들이 총 출동했다. 제국의 아이들의 동준, GOT7의 영재와 Jr., 보이프렌드의 동현과 현성, A.O.A의 민아, 유나, 찬미, 달샤벳의 세리, 기은, 아영 등이 희망의 승부차기 게임에 함께했다.

희망의 승부차기는 물을 뚫고 골을 넣어야 하는 '물 슛', 상품을 향해 축구공을 차는 '번호판 슛', 축구공을 차서 불꽃링을 통과시켜야 하는 '불꽃 슛' 등 이색적인 세가지 게임으로 진행 되었으며, 온 몸을 아끼지 않은 선수들의 활약과 현장에 함께 했던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더불어 현장에서는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의 일환으로 '별빛요정 소원의 샘물'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 축구 꿈나무를 비롯해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축구공

희망의 승부차기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축구를 통해 꿈을 꾸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축구공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운재 팀과 손진영 팀으로 나누어 진행된 희망의 승부차기는 각 게임별로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총 1,200개의 축구공을 플랜코리아에 전달했다. 재미와 의미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참가자들의 참여가 있었던 플랜코리아와 KBS 출발 드림팀이 함께하는 희망의 승부차기는 지난 7월 방영되어 많은 시청들에게도 희망을 선물했다.





플 랜 긴 급 구 호

Ebola virus

에볼라 바이러스

“지역 주민들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루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심각한 질병으로 평가 받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속도를 늦출 그 어떤 조짐도 없이 서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고(2014년 8월 28일 기준), 인근 국가인 세네갈, 기니비사우, 말리, 가나, 베냉, 부르키나 파소, 니제르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각국의 국민들은, 감염자들이 심각한 출혈 증상으로 죽는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는 에볼라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한편 그들의 이동을 제한해 확산을 막기 위한 군대가 배치되었다. 이 재앙과도 같은 상황은 ‘컨테이젼’이나 ‘아웃브레이크’와 같은 헐리우드 픽션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서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로 서아프리카 몇 백만 명의 생명이 위태롭고, 서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목숨이 위협 받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볼라를 잠재우기 위한 세계적인 대응이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고, 한시라도 빨리 에볼라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과의 접촉과 체액에 의해 쉽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9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예방만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공중 보건에 대한 인식 증진과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감염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응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에볼라

경계가 허술해 쉽게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에볼라의 확산력에 대한 초기 추정의 문제, 정보부족, 위험한 매장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취약한 공중 보건 체계와 빈곤이 에볼라의 꾸준한 확산에 기여하고 역사상 가장 복잡한 질병 사태로 만들고 있다.

160명이 넘는 보건 요원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 되었고, 이 중 절반이 사망했다. 감염의 위험이 보건 요원을 포함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모두에게 있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루머들이 도처에 만연하여 이미 시도 중인 대응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비상대응센터 문을 닫도록 강요하면서 보건 요원들을 공격했다.

라이베리아, 전쟁보다 더한 재앙

1989년부터 2003년 사이 총 11년간 내전으로 시달렸던 라이베리아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초토화되었다. 8월 26일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총 1,752명의 감염자 중 897명이 사망했고, 이 중 40%가 지난 21일 동안 라이베리아에서 발생된 감염자라고 한다. 에볼라로 홍폐해진 라이베리아에서는 주민들이 급속히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현 사태에 대해 전쟁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특히 플랜의 활동 지역인 로파까지 에볼라가 확산되어 현재까지 8명의 후원 아동이 에볼라에 감염되어 치료센터로 이송되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어려운 장기전

현재 에볼라 사태는 세계적 차원의 전례 없는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속도를 늦출 그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장 토마스 프리든 박사는 ‘어려운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요.
제가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신께 기도할 뿐이예요.”

에볼라와의 싸움을 끝내기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접어들었다.

질병 감독, 조기 경보 체계와 향상된 대응 수단 등 강력한 공중 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중 보건 체계와 재난 대책에 대한 지원은 에볼라 사태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선책이다.

플랜의 대응



- *라디오 방송, 포스터 등을 이용한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 정보 제공
- *엠블란스 및 응급 차량 연료 제공
- *공중 화장실 및 공공장소 살균소독
- *손씻기 키트 제공
- *의료 키트 제공
- *의료진 역량강화 교육 및 트레이닝
- *보건부 지원
- *국제의료단(IMC)과 협력하여 예방/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에볼라 긴급구호 지원]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후원전화 ARS 060.700.1170 (한 통화 5,000원)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 후원하기 ▶ 긴급재해지원 ▶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구호
해피빈 콩 기부하기 ▶ 플랜코리아 해피빈 (네이버 해피빈에서 플랜한국위원회 검색) ▶ 서아프리카, 에볼라 공포

GIRLS DAY

걸스데이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생일파티 ♥

글_플랜코리아 홍보기획팀 김혜현 / 사진_포토그래퍼 원상희



태국 북부의 대표적인 여행지 치앙마이. 휴가철이 막 지나 비교적 한산한 치앙마이를 걸스데이가 찾았다. 첫 번째 콘서트에서 기부한 수익금으로 출생등록이 안된 태국 여자아이들을 돋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치앙마이 공항에서 그녀들을 기다리는 팬들을 보니 새삼 걸스데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날, 환호하는 팬들을 뒤로하고 치앙다오 지역으로 향했다. 굽이굽이 산을 오르고 내리고 휴대폰의 수신호가 꺼지기를 여러 번, 그렇게 차로 세 시간을 달려 치앙다오의 작은 마을, 반 노엘 마을에 도착했다. 귀까지 먹먹해지는 게 꽤나 높고 깊은 산 속이다 싶은 생각이 들 무렵, 차에서 내리는 우리를 반기며 달려오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통의상을 인형처럼 차려 입은 이 아이들이 사는 마을은 다라양이라는 태국의 소수민족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202가구, 1,224명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 중 무려 850명이 무국적 상태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와 국경이 인접한 이 곳은 미얀마 및 주변 국가로부터 넘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때문에 태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이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상에 없는 아이들이 되어 정규 교육은 물론 국가로부터 어떠한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것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태국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 마을 주민 대부분은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오늘의 한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만난 네 명의 여자아이들 또한 출생등록이 안된 무국적자이기 때문에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마을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다행히도 플랜태국은 2013년부터 이 마을에서 출생등록 프로그램을 실시해 마을 주민들의 출생등록을 돋고 있다. 플랜태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걸스데이가 만난 네 명의 여자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선물하기로 했다. 걸스데이의 첫 번째 콘서트 수익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인다고 하니, 현장에 직접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출생등록을 돋게 된 걸스데이에게도 참뜻 깊은 일이었다.

접근이 어려운 마을의 상황을 고려해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돋기도 하는데, 이날 역시 마을을 찾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몇십장의 서류를 넘기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출생등록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전 준비작업이 철저히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한 일이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출생등록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도 서류를 냈는데 왜 안 되는 것이냐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얼굴로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공식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두꺼운 서류 작업을 완료한 후 네 명의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제 일년 후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당당히 태국 시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는 하는 것인지 아이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어느 때보다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이 뜻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자신들의 생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과 아이들은 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일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출생등록을 한 사람들은 오늘이 생일인 것이다. 참으로 기쁘지만 한 편으로는 슬픈 생일이었다.

6세에 처음 생일을 맞이한 아이부터 50세에 처음 생일을 맞이한 노인까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같은 생일을 갖게 된 사람들.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매년 5천만여 명의 신생아들이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모든 아이들이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증명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기쁘고도 슬픈 특별한 생일 파티는 계속 될 것이다.

1. 지구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요

삼성디스플레이와 플랜의 인연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도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아프리카 수단에 여자 초등학교 신축 사업을 통해 교실 7개, 교무실, 컴퓨터실, 화장실, 담장 등의 건축과 가구 및 기자재 지원, 학부모, 교사, 기타 주민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했다. 뒤이어 올해에도 아프리카 토고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 아베지(Avedji)라는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 건립 사업을 지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착수되어 현재 사업 운영위원회 조직, 건축업체 선정, 우물 건축 등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까지 교실 6개 건축, 화장실, 세면대, 쓰레기장 등 위생시설 설치, 책걸상, 기자재, 교과서 및 기타 도서 지원, 지역사회 위원회 교육 등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소중한 기부로 토고 지역 아이들을 후원하는 1:1 아동결연 또한 함께 진행하여, 현재 약 200명의 어린이들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고 있다.

2. 우리 곁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요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 천안 및 기흥 내 4개 캠퍼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천안·아산 소재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임직원들은 재능기부 활동을, 대학은 다양한 교육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찾아가는 나눔특강' 또한 디스플레이의 이색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5월부터 6월초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본 특강은 디스플레이의 개요와 차세대 기술, 사회공헌 등을 주제로 총 12차례 진행되었으며, 대학에서 지불하는 강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사 매칭을 통해 장학금 또는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대학에 기부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디스플레이는 지역의 미래 인재들과 함께 소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지난 5월 17일에는 디스플레이 1기 대학생 봉사단 'SOL-POP BLUE'의 소중한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진행됐다. 'BLUE'는 Be Light Until the End의

약자로 끝날 때까지 세상을 밝혀 주는 디스플레이 대학생 봉사단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SOL-POP BLUE' 대학생 봉사단은 대학생들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학생의 젊은 생각과 임직원 멘토의 경험이 더해져 지역사회 봉사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봉사단은 총 8개조로 나뉘어 10월까지 매월 1회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디스플레이의 주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워킹 페스티벌, 사랑나눔 김장축제 등에도 참여해 함께 활동하게 된다.

이 외에도 디스플레이는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에 대한 천안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2014 SOL-POP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의 마음에 감동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지난 4월 12일에는 탕정면 삼성로 벚꽃길, 둘레길에서 '벚꽃 엔딩 즐기기'라는 걷기대회를 주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흥겨운 풍물 공연과 색소폰 연주,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탕정면 주민자치회 밸리댄스 공연 등으로 즐거운 축제의장을 마련하였다.

한편, 7월 예산 고덕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충남 삼성고등학교까지 충남(아산, 천안)권 중·고등학교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기아체험 24시간' 활동을 전개한다. 기존 하나의 장소에서 많은 청소년들과 진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직접 찾아가는 릴레이식 기아체험으로 진행된다. '기난'이라는 테마와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촌의 새 생명을 살립니다'라는 핵심주제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열린 마음을 배우고 느끼며 실천하는 체험현장이 기대되며, 가난과 환경파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빈곤 국가들을 돋기 위해 자원하여 후원금을 모으는 모금활동과 스스로 난민촌을 만들어 실제 짊기를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캠프로 운영된다.





플 랜 활 동 기

인연이 닿아야 갈 수 있는 곳, “밍글라바, 미얀마입니다”

글·사진_플랜코리아 봉사단원 장은영

2014년 3월 8일 이름조차 생소했던 미얀마의 수도 양곤 땅을 처음 밟았다. 한국인들에게는 ‘버마’라는 이름과 아시아 최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로 유명하고,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정도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Nargis)의 피해가 없었다면, 아직도 그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었을지 모르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고요의 땅이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공항에 내렸을 때, 얼굴에 노란 타나카를 바르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눈에 보였고, 신 새벽 같이 조용하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가득했다. 한국은 몹시 추운 초봄이었는데 늦은 밤 공항을 나서며 사우나에 들어선 것 같은 후덥지근함에 당장 웃음을 벗어버렸다.

미얀마는 군사정권이 물러난 2011년 본격적으로 세상에 문을 연 이후, 단 시간에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양곤과 만달레이 등 큰 도시에만 한정된 발전이지만, 2011년 이전에는 양곤조차 196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하나, 그 발전속도를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3년 사이에 대형 쇼핑몰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도(歩道)로도 사용되던 도로는 이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양곤의 물가는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음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도시빈부격차가 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얀마에서 구걸을 하는 이들을 자주 보기는 어려운데, 도시빈민으로 몰리거나 고아가 된 아이들은 불가에 귀의하여 턱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같이 훈훈한, 미얀마 사무소 사람들

내가 근무하게 된 플랜미얀마의 사무소는 미얀마의 옛 수도이자 영국 식민지 시절의 중심지였던 양곤에 위치해있다.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긴급구호 활동으로 시작하여, 2012년 미얀마 정부와 첫 MOU를 맺으며 정식활동을 시작한 신생 사무소지만, 나르기스 때 인상적인 긴급구호 활동을 펼쳐 현지에 있는 NGO들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사무소 직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따뜻하여 배울 점이 많다.

일전에 동료들과 2박 3일간 아동중심 지역개발(CCCD: Child Centered Community Development)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CCCD 트레이닝의 마지막 날은 언제나 마을에 방문하여 직접 주민들과 만나 실습을 하고, 해당 마을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우리가 방문했던 마을은 지역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 아직 플랜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했다. 그런데 마을을 다니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도 집에서 손을 흔들며 우리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이상하다 생각하던 차에, 동료들이 이미 마을대표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있었다. 마을대표는 마을에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 최대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30명 가량 있다고 대답했다. 직원들은 짧은 논의 끝에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모금함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플랜이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플랜 직원들이라도 지원하자는 한 동료의 말에 따뜻한 마음씨와 깊은 정이 느껴졌다.

짧은 경험이지만 내가 만난 미얀마인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 낯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타지만, 정이 많고 자존심이 세며 부지런하다. 교육열이 높아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가릴 것 없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노력하는 점도 비슷하다. 현장에 나가 주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꼭 있는데, 이럴 때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다. 플랜미얀마의 동료에게, “미얀마인들은 한국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했더니, “순박하고 부지런한 미얀마인들이 오랜 군사독재와 폐쇄적인 국가 운영 탓에 가난 속에 고통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대답하여 또 한 번 마음이 아련해졌다.

모두의 마음이 모여 결실을 이루기를

이곳 플랜미얀마에서 나는 플랜코리아를 대표하는 봉사단원으로 현대제철에서 지원하는 ‘식수사업을 기반으로 한 따웅비라이 지역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구온난화로 급격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Dry Zone에 식수시설 마련, 농업/직업 교육, 위생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이 약 3년 간 진행된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우기에도 물 한 방울 없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보면, 이 사업이 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되새기곤 한다.

아동을 후원해주시고 사업을 지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부터, 이정표 없이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씩 가야 하는 사업지역으로 매번 운전 해주시는 기사님들까지, 모든 이들의 도움과

노고가 개발현장에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낀다. 비록 현장에 나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현장의 동료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이 일을 더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작게나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 타지에서 버티는 하루하루가 힘에 부칠 때도 많지만, 미얀마에 머무는 시간 동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라본다.

삼성물산 인도방문기

당신 안의 신에게 절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을 경배합니다.

나마스떼

글_삼성물산 상사부문 생활산업팀 서진희 책임 / 사진_삼성물산 홍보팀

2011년에 이어, 플랜코리아와 함께 하는 해외 봉사활동 두 번째 참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인도에 두 번째로 봉사하러 간다는 말에 그렇게 고생하고 또 무슨 방문이냐,
뉴스를 접하다 보니 그 곳 정말 위험하다던데 괜찮겠냐는 등 저를 말리거나 걱정 어린 말들을 했었습니다.

실은 저도 망설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막상 봉사활동 신청을 하려고 하니 처음 인도를 방문 했을 때의 소들, 오토바이 그리고 릭샤들이 엉킨 도로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화장실, 그리고 양치질에 절대 쓸 수 없는 물... 인도에서의 불편함이 먼저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괜히 신청한건 아니었나? 나이도 이제 먹었는데... 그러나, 막상 봉사활동 관련 메일들이 오가다 보니 처음 접했을 때의 인도 아이들 눈망울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뚫망뚝망한 아이들이 있었지!'



우리가 봉사하기로 한 학교를 방문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작년과 달리 학교가 많이 발전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교 강당에 지붕도 생기고 운동장에 잔디도 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 학교를 상상하게 되었고, 굳이 좋은 학교를 도와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방문을 하고 보니, 제가 머리로 그렸던 그 학교가 아닌 열악한 환경으로 둘러싸인 학교였습니다. 지붕이 있는 강당은 비둘기가 날아 다니고, 에어컨이 아닌 부실한 팬들이 힘겹게 돌아가고 있었으며, 강당 바닥은 흙먼지에 쌓여 있고. 일부 아이들은 운동장 한켠에서 수업을 듣고... 수돗가는 고장난 수도꼭지와 음식을 짜끼기들이 텅굴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벽

화를 그리기로 한 교실들의 창틀은 굵어 내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몇 십 년 쌓인듯한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 이 교실들을 어떻게 해야 한담." 교실을 보자 마자, 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겹겹이 쌓인 먼지를 털어 내고, 창틀과 교실 벽에 칠판을 시작하니 끝은 보이지도 않았고, 정말 이 많은 작업을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우리들이 그린 벽화들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Hello"를 외치며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며,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봉사를 기필코 마무리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

벽에는 삼성물산 직원들, 가족들 그리고 플랜 담당자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 내륙에 있는 아이들이 접하기 힘든 바다 속 생물체를 주제로 고래와 분홍 고래,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이 벽화들은 아이들에게 지금의 세상 말고도 훨씬 넓은 세상이 있으니,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벽화 그리기 외에도 아이들과 문화 교류, 티셔츠 그리기, 에코백 만들기, 미니 올림픽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전교생 모두와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에 봉사자들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인도에서 힘들지 않았느냐고. 몸은 괜찮느냐고.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깨끗한 교실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벽화와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듦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동안 틀에 박힌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나만의 새로운 세상에서 나의 고래가 힘차게 해엄치며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나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하며...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스리랑카 (Sri Lanka)



플랜 스리랑카에서는?

플랜은 1981년부터 스리랑카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270여 개의 농촌 지역사회에서 약 2만 명의 후원아동과 12만5천여 명의 소외계층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주요활동

보건과 위생 개선 주로 젊은 여성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 방법을 가르쳐, 5세 미만 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개인 및 지역사회가 지역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수준 향상 교육 기회를 증대시키고 수업의 질 향상 및 적절한 학교 운영/관리를 통해 어린이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교내에 연령과 성별에 맞춘 화장실 및 식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 및 참여활동 강화 아동보호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지역·가족 단위의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이나 학대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어린이 모임 및 학교 내 특별 활동 등을 운영해 어린이가 외부의 위협과 차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

가계수입 안정 소외된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저축 및 소액자본 대출서비스, 소규모 창업 지원 등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위치 인도 동남부 인도양 해상

수도 콜롬보

언어 Singhala어, Tamil어, 영어

면적 65,610 km²

인구 21,866,445명 (2013년)

기후 연평균 기온 27~28°C 전후의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종교 불교(69%), 힌두교(11%), 회교(7.6%), 기독교(7.5%)

인도양의 눈물, 실론티의 고장, 신밧드 모험의 나라, 뜻밖의 행운을 뜻하는 세렌디피티의 여원인 '세렌답'이라고 불리던 나라, 스리랑카의 정식 국가 명칭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이다. '동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경치가 아름답고, 고대 문명이 풍부하게 녹아 있는 문화의 보고인 스리랑카는 세계 굴지의 보석 산출국이다. 아시아 남부 인도양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 요지를 차지한다. 행정 구역은 9개 주(province)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는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다.

18세기 말부터 영국 식민지로 지내다 1948년 영국연방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72년 국명을 실론(Ceylon)에서 스리랑카공화국으로 바꾸고 영국연방에서 완전 독립하였다. 그 후 1978년에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꾸었다. 주요 농산물은 차, 코코넛, 고무 등이다.



틀린그림찾기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Enjoy Plan



참여방법

- ▶ 틀린 그림을 5개()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 ▶ 틀린그림을 찍은 사진과 함께 틀린그림 찾기 푸드코리아 페이스북 (www.facebook.com/plan.kr)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여름 축 이벤트 당첨자

이자흘 / 정영숙
박경신 / 박희진 / 이경태
이지훈 / 정영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상단 및 당첨자는 겨울호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닐슨코리아와 캠페인 진행

6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닐슨코리아와 함께 '플랜코리아와 함께하는 닐슨 글로벌 임팩트 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닐슨 임직원 애정품 경매, 아동노동 근절돕기 나눔 바자회, 핑크 레몬에이드 판매, 여자아이의 교육권 지지를 위한 Raise Your Hand 포토 이벤트 등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가 펼쳐졌다. 또한, 아동노동을 체험해보는 펠트 죽구공 만들기, 플랜코리아의 다양한 문서 번역 참여, 여자아이들을 위한 머리핀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플랜코리아의 오상진 흥보대사도 참석해 불법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닐슨 글로벌 임팩트 데이는 전세계 100여 개국 닐슨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날로, 올해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세계 곳곳의 아동 노동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3호 베트남 롯데스쿨 기공식

베트남 타이응웬 주의 빈곤율이 높은 산간마을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제3호 롯데스쿨' 기공식이 열렸다. 타이응웬 주는 국가 전체 빈곤율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대로, 빈곤 뒷에 아이들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타이응웬 주 까우비엔 초등학교는 노후한 건물인데다,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 시멘트로 지어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오래된 책갈피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 불편할 정도에 남녀 구분 없는 회장실 등 위생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초등학교와 유치원 건물의 신축과 함께 올바른 식수·위생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운동장과 담장을 설치하고 교내 가구 및 기자재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롯데스쿨 3호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 마련을 위해 롯데백화점 노조위원회는 임직원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교에 직접 학용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사랑을 나누요, 송재림, 신수지 흥보대사 위촉식

배우 송재림과 전 체조선수 신수지가 플랜코리아 흥보대사로 새롭게 위촉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플랜코리아 흥보대사로서 빈곤국가 어린이들의 인권 신장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세련된 이미지와 단단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 송재림은 "흥보대사로서 보다 많은 이들이 지구촌 문제에 관심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으며, 전 리듬체조 선수에서 프로 볼링선수로 전 환을 준비 중인 신수지 선수 또한, "플랜코리아의 흥보대사로 위촉돼 어깨가 무거운 한편, 뜻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 매우 설렌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성령, 전미선, 오상진, 이수경, 걸스데이, 백진희에 이어 플랜코리아의 흥보대사가 함께했다. 백진희 흥보대사는 소원의 샘을 모금활동을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풍선배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게임으로 배워요, 세이프 스쿨 교육용 앱 개발

플랜코리아와 플랜인도네시아는 재난위험지역 어린이들이 재난재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이프 스쿨(Safe School)"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 앱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KDB 대우증권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 활동 중 하나로,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누사 텅가라 티무르 주의 티모르 셀라탄 지역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앱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학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자연재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게임을 하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으로 번지고 있으며, 교사에게는 유용한 교보재가 되고 있다고 플랜인도네시아의 재해대응 프로그램 매니저 와후 문코로는 전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구글스토어 및 Appstore에서 "Safe School"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하며,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제공되고 있다.



소원을 말해봐, 에버랜드와 함께하는 별빛요정 소원의 샘물

플랜코리아가 에버랜드와 함께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을 위해 '별빛요정 소원의 샘물'을 설치하고 모금활동을 실시했다. 에버랜드 장미원에 위치한 소원의 샘물 분수에 소원을 담아 동전을 던지면, 모금된 금액은 빈곤과 차별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쓰여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의미를 담았다.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펼쳐졌다. 플랜코리아 흥보부스를 운영함과 동시에, 여자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지지하는 Raise Your Hand 포토 이벤트, 풍선배포, 페이스 페인팅 등을 진행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특별히 소원의 샘물 캠페인 마지막 날에는 백진희 흥보대사가 함께했다. 백진희 흥보대사는 소원의 샘물을 모금활동을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풍선배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와 MOU 체결

플랜코리아가 국내 최대 복합사업인 알파돔시티를 운영하는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와 MOU를 맺었다. 향후 알파돔시티자산관리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플랜코리아를 통해 개발도상국 아동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상호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알파돔시티는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역으로 주거, 상업, 업무, 호텔 등이 갖춰지는 복합단지로 수도권 남부의 문화, 예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는 알파돔시티 내 일부 공간을 문화 컨텐츠를 위한 공익적인 흥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공동캠페인 및 이벤트를 비롯한 각종 사업영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원난성 지진, 여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지난 8월 3일 중국 원난성에서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589명의 사망자와 2,40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십만여 명의 이재민 및 676,000채가 넘는 집들이 파손되었다. 게다가, 가장 피해가 많았던 루멘 현에서는 거의 100여 학교가 폐쇄되었고, 대략 50,000채의 집들이 피해를 입었다. (8월 8일 기준) 이에 플랜 인터내셔널은 즉시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고 정부와 다른 구호단체들과 함께 피해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구급키트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공간을 진원지 주변에 두 곳 설치했다. 아동친화공간에서는 800명 이상의 어린이와 부모에게 육아와 아동발달, 아동보호, 재난위험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학교가 재건될 때까지 아동들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BIAAG 홍보대사 프리다 펜토, 여자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말하다.

플랜의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의 홍보대사인 슬럼 둑 밀리어너의 프리다 펜토가 7월 영국에서 열린 2014 소녀들의 정상회의(Girl Summit)에 참석해 여자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담은 조혼과 여성 할례(FGM) 등 소녀들의 인생을 위협하는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플랜은 프리다 펜토의 참석 외에도 펠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자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2초 당 한 명의 여자아이가 조혼하고,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 5백만 명 이상의 여자아이들과 여성들은 여성 할례를 겪는다. 여성 할례 및 이를 임신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사진 속 여자아이들은 집에, 가족들에게, 학교에, 평화로운 말리에 돌아가기를 꿈꾼다. 플랜은 난민캠프의 여자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진작가 미리 코우타니에미와 사진전을 계획했다. 미리 코우타니에미는 2012년 올해의 사진작가상 수상 외 여러 수상 경력이 있으며, 그녀의 작품은 인권과 소수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말리 난민 사진전, '마나먼 타국 : 타바레이바레이의 소녀들'

플랜 인터내셔널과 핀란드의 사진작가 미리 코우타니에미가 사진전 '마나먼 타국: 타바레이바레이의 소녀들(Far from Home: Girls of Tabareybarey)'을 열었다. 이 사진전은 말리의 분쟁으로 인해 난민으로 피난 온, 타바레이바레이 난민캠프에 있는 여자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약 9천 명의 말리 난민들이 타바레이바레이 난민캠프에 살고 있는데, 이 중 60%가 아이들이다. 난민 캠프의 여자아이들은 폭력, 강간, 강제 조혼에 노출되거나 쉽고, 조혼과 이를 임신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사진 속 여자아이들은 집에, 가족들에게, 학교에, 평화로운 말리에 돌아가기를 꿈꾼다. 플랜은 난민캠프의 여자아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진작가 미리 코우타니에미와 사진전을 계획했다.



세계 어린이 교육을 위한 약속, 브뤼셀 교육 서약 회의

플랜의 후원자이자 흥보대사인 독일 축구 대표팀의 마리오 괴체 선수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 되었다. 괴체 선수는 플랜의 스포츠 캠페인 'Kinder brauchen Fans!'(아이들은 팬이 필요합니다!)의 흥보대사로서 브라질 소녀 축구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 빈곤 지역의 여자아이들을 축구 수업에 참여시켜 성 평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역량을 확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다. 브라질은 신종 경제 발전국이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계층에 속해있으며, 이 중 약 8백만 명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다. 특히 빈곤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자아이들은 폭력, 성 매매와 매춘에 노출되어 있다. 괴체 선수는 "결승골을 넣은 후 울려 퍼진 팬들의 환호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응원의 일부를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라며 전 세계 축구팬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간다 대통령, 플랜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다

플랜이 우간다에서 최고의 아동 단체로 인정받았다. 우간다 대통령인 요웨리 무세베니는 플랜을 교육과 건강 실현에 기여한 '책임감 있는 파트너'라는 영예를 주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6월 27일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우간다책임투자(URI, Uganda Responsible Investment) 시상식에서 "플랜과 같은 성실한 파트너들이 없었다면 국가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우간다책임투자 시상은 국제적으로 최고의 관습과 기준을 충진시키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조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플랜은 우간다에서 22년간 교육, 식수,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경제 지원, 아동보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플랜은 높은 수준의 활동을 유지해 온 점, 특히 새천년개발 목표 달성을 기여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Plan logo watch 21,000 Won

플랜 로고 손목 시계

플랜 로고가 새겨진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밴드부분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색상: 검정

NEW



Plan crystal pen 13,000 Won

플랜 크리스탈 볼펜

메탈의 고급스러움과 반짝이는 크리스탈 장식이 채워져 세련미를 더한 볼펜
플랜로고가 새겨져 있고, 케이스가 제공되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색상: 화이트/블랙/옐로우/핑크/블루



가을맞이 20% 할인 이벤트

Plan tumbler 21,000 → 16,800 Won

플랜 스테인레스 텀블러(보온보냉)

Plan Shop

PLAN SHOP NEW ARRIVALS

플랜샵에서 준비한 신상품을 소개합니다

구입 및 문의 플랜샵 02-516-5107

W W W . P L A N S H O P . C O . K R



Gift for sponsored child
Flower Post 꽃말엽서



Gift for sponsored child
Puzzle Card 퍼즐카드



Gift for sponsored child
Birthday Card 생일카드



후원아동에게 보낼 수 있는 선물

[꽃말엽서][생일카드][퍼즐카드]

그 밖에도 사랑스런 후원아동에게 편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랜샵을 방문해 보세요!